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학원 5% 할인
학원 업종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U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U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 10. 17) 유효기간: 2024. 10. 25 ~ 2025. 10. 24
연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 10. 25 ~ 2025. 10. 24)

부산체육 2025. 05 Vol. 78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체육

Vol. 78
2025. 05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금빛 훈련일지
수영구청 브레이킹팀

Sports is Busan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체전 trivia
1970년대 전국체전 이야기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05 Vol. 78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8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성료
- 06 부산체육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부회장
- 10 금빛 훈련일지
수영구청 브레이킹팀
- 14 푸른 바다, 큰 꿈
부산국민체육센터 김우진 과장 가족

산 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18 경기장 밖 부산
경기장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할 다채로운 즐길 거리
- 해운대구 & 사하구
- 22 Sports is Busan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26 전국체전 trivia
1970년대 전국체전 이야기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벚꽃길 걷기대회
- 스포원
- 38 종목 소개
브레이킹
- 42 스포츠&컬처
안전 배출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
- 제36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 속바른내과 종합검진센터 정연정 대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6 부산체육인



10 금빛 훈련일지



22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38 종목 소개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전국체전기획단 대외협력TF팀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성료



지난 4월 21일(월) 국회에서 제9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및 심포지엄이 열린 데 이어 4월 22일(화)~4월 24일(목) 2박 3일 일정으로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가 부산을 방문하였다. 부산시와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해외동포선수단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는 2011년에 설립(대한체육회 인준), 총 18개국(아시아 9, 북미 2, 유럽 3, 남미 2, 오세아니아 2)이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국체육대회 해외 동포선수단 출전, 국가별 체육자료 공유, 엘리트선수 전지훈련 협조 등이 있다. 이번 일정에는 17개국(재아르헨티나 대한체육회 불참)에서 40명이 참가했으며, 이에 부산시는 세계한인체육

회 총연합회 임시총회 개최, 주요시설 방문, 숙박, 오찬 및 만찬 등을 지원하였다.

첫째 날에는 전국체육대회 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장 주재 환영 만찬이 진행되었다. 전국체육대회 관계자 회의 주요 내용은 체전준비상황 보고, 해외동포선수단 지원계획 보고 등이었다. 환영 만찬에서는 부산시와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가 우의를 다지는 한편, 부산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개발한 메뉴를 제공하여 부산의 매력을 알렸다.

둘째 날에는 전국체육대회 주 경기장인 부산아시아드 경기장과 스포원파크 테니스장, 해운대수목원 축구장 등 해외동포선수단 경기장을 방문하여 대회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국가별로 숙박시설을 답사하였다. 부산시는 연수원 시설 등 해외동포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묵을 숙박시설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셋째 날에는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자체 행사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임시총회 주요 내용은 활동내역 보고, 주요안건 토의 및 의결 등이었다. 이후 부산시 체육국장 주재 환송 오찬을 끝

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방문에 앞서 부산시는 전국체육대회 관련 상호 논의를 통해 해외동포선수단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림으로써 많은 해외동포선수단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다.





연장자 아닌 선배가 되기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오선 부회장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실무형 경영자 이오선 대표는 지난 임기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청년이 행복해야 지역이 살아나고, 구성원이 성장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 아래 체육계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이오선 부회장을 만나보았다.



“청년이 행복해야 지역이 살아나고, 구성원이 성장해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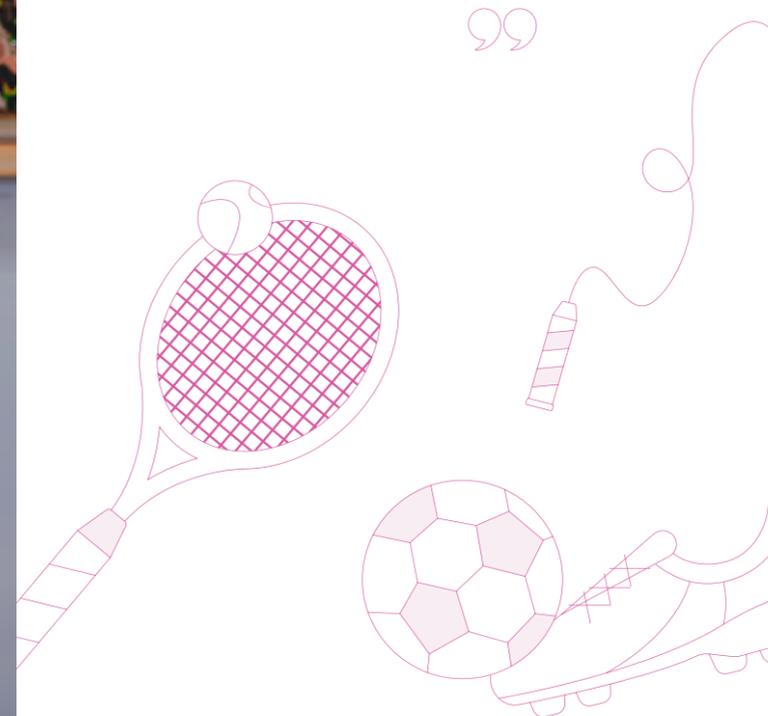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뜻밖의 인연

이오선 부회장은 처음 부회장직 제안을 받았을 당시를 회상하며, 아직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고, 체육회 임원들과의 뚜렷한 접점도 없었던 터라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착오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장인화 회장님과는 그전까지 거의 접점이 없었어요. 같은 경영인 이다 보니 오가며 이름 정도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신정택 회장님께서 부회장직을 제안하시며, 장 회장님이 직접 저를 추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조선비치 호텔 행사장에서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저를 적임자로 판단하셨다고 해요. 체육회 임원으로서 필요한 실천력과 실무 중심의 태도를 높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안을 곧바로 수락하지는 않았다.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깊은 고민 끝에 결국, 체육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에 생각이 미쳤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능력을 뜻깊은 일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회장직이 바쁘고 힘든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부산체육계에 기여할 기회를 마다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권유해주신 선배님들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웃음) 첫 임기를 무사히 마친 뒤,





다시 한번 부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땐, ‘적어도 나쁘진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임은 저에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성체육 활성화로 부산체육 부흥 꿈꾸다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는 여성체육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체육대회 발대식, 결단식 등의 각종 행사에 여성위원회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특히 여성 체육인들이 활동하는 종목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제가 직접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에서 진행되는 여성 특화 사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어요. 배구나 라인댄스처럼 여성 체육인이 많은 종목은 물론, 풋살이나 하키, 격투기 같은 격렬한 종목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

산이 진정한 선진 체육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종목에도 여성 생활체육인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모든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회 부회장이 말하는 운동의 중요성

체육회 부회장직을 맡으며 체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이오선 부회장은 요즘 나름의 아쉬움을 안고 있다. 바쁜 일정 탓에 정작 본인의 운동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여가 시간에 헬스나 요가를 즐겼지만, 지금은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보다 더 아이러니할 수 있을까요. 체육회 활동을 하며 운동에 대한 욕구는 커졌는데, 정작 운동할 시간은 없어요. 거기다 장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 통증까지 생겨

서 무리한 운동도 당분간은 어렵고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켜진 이후, 그는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다. 최근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파크골프다. 한 경기당 7,000보 이상 걷게 되고, 허리에 무리도 적은 점이 큰 장점이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와, 허리 부담을 덜어주는 수영을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수영은 예전에 새벽 사우나와 함께 즐기던 익숙한 운동이기도 하고, 허리에 부담이 없어 요통이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 좋습니다. 바빠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10년 뒤, 이오선은 어디에 있을까

부회장직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오선 부회장은 종종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단순한 직책의 연장자가 아니라, 체육계의 선배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이번 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제 경영 철학에도 맞닿아 있는 꿈인데요. 실무형 경영자로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위에서 지시하고 통제하는 리더보다는 구성원과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땀 흘리는 리더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10년 뒤 제 모습이 어떨까 상상해 보면, 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마친 후 곧바로 운동

복으로 갈아입고 경기장으로 뛰어가는 선배 체육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체육인으로서 함께 호흡하고 싶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뛰는 현장에서, 부산의 체육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 자신을 기대해봅니다.”





출발! 브레이킹 드림팀

수영구청 브레이킹팀



지난 3월, 수영구는 지역 최초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창단멤버는 2024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의 지도 아래,
브레이킹 씬에서 주목받는 젊고 유망한 네 명의 선수로 구성된 드림팀이다.
역동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브레이킹의 에너지로 부산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수영구청 브레이킹팀을 만나보았다.

‘비보이 공장장’ 소재환 감독

소재환 감독(비보이 KINSO)은 울산을 대표하는 브레이킹팀 ‘카이크루’의 대표이자, ‘갬블러크루’의 창단 멤버로 2000년대 초부터 국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레전드 비보이’로 불리는 그는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하며 문화와 스포츠의 경계를 넘나드는 브레이킹의 발전과 함께해왔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실업팀으로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로워요. 브레이킹을 그저 좋아서 하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어 감사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낍니다.”

30년 동안 브레이킹 씬을 지켜온 그는 브레이킹에 대한 인식 변화를 누구보다 생생히 느끼고 있다.

“처음에는 브레이킹을 불량하게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기성세대에선 낯선 문화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점차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스트리트 우먼·맨 파이터’ 같은 방송이 큰 인기를 끌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편견이 많이 없어졌죠. 팬층도 훨씬 넓어졌고요.”

그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씬에서 주목받는 젊은 선수들이 모인 만큼, 수영구청팀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브레이킹이 처음 시범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팀은 새로운 경기 시스템에 맞춰 철저한 대비에 나섰다. 하루에 여러 라운드를 연이어 소화해야 하기에 선수들은 체력 강화와 시그니처 동작 중심의 집중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일 실전처럼 라운드를 소화하는 연습은 수영구청팀만의 특별한 훈련 방식이다.

“수영구청팀을 시작으로 더 많은 지역 실업팀이 생겨나, 브레이킹을 꿈꾸는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팀원들은 지역 최초 실업팀만큼 부담도 있겠지만, 멋진 활약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악어를 닮았다고 해서 '크로커다일'에서 따온 '다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12년 차 비보이 장수현입니다.

소재환 감독님은 우리 지역 브레이킹계의 전설이자 어릴 적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감독님을 보면 사진을 부탁할 정도로 동경했어요. 이렇게 지역 실업팀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브레이킹 경기는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자극하고 견제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객분들도 그런 심리전을 중심으로 본다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배틀 중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센스나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제스처에 특히 집중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는 가족들, 울산에 있는 크루원들,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끊임없이 힘을 보태 주는 팀원들과 감독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성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현
'비보이 DAIL'

'Ready for action'이라는 뜻을 담아 '프레디'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13년 차 비보이 천병준입니다.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했기에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최초 실업팀의 일원이 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넘어,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정식 선수가 되었다는 점이 큰 변화예요.

팀원들과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에피소드예요. 특히 저희 감독님은 누구보다 연습에 진심인 분이예요. 13년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존경스럽습니다.



천병준
'비보이 PREDY'

저는 춤으로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을 살리는 데 집중하며 연습하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과 다른, 저만의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드리기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춤을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잘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

수영구는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젊은 세대의 문화예술인 브레이킹 실업팀을 창단했습니다. 전국 두 번째 사례인 이번 결정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으로 주목받는 브레이킹의 국내 저변 확대와 지역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선수들이 기량을 펼칠 무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브레이킹팀 창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와 꿈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활기찬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영구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고, 향후 전국 대회를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영구청 브레이킹팀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팀으로 성장하여 수영구를 K-브레이킹의 메카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선수들의 도전과 성취에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자긍심을 느끼는 팀으로 성장하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14년 차 비보이 노희범입니다. 대한민국 브레이킹이 한창 전성기였던 시절,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나온 비보이들의 멋진 모습에 매료되어 브레이킹을 시작하게 됐어요. 전국의 모든 비보이가 꿈꿀 만한 실업팀의 일원이 되어 영광스럽고, 덕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도 생겼습니다.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춤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예요. 때때로 '혼자였다면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느슨해질 때마다 팀원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저 역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됩니다.



노희범
'비보이 BAM'

누구에게나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춤을 추기 위해, 요즘에는 기술과 스타일을 조합한 저만의 독창적인 무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성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루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7년 차 비보이 이범수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권유로 방송댄스를 시작했는데, TV에서 비보이들을 보고 '남들이 다하는 것 말고, 더 어려운 걸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눈을 뜨면 연습실로 달려갈 만큼 춤추는 게 즐거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니, 사람들이 더 정이 많고 따뜻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혼자 연습했지만, 지금은 형들의 연습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좋은 습관들을 고치고, 저만의 장점과 기술을 최대한 살려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범수
'비보이 GROOT'

부산에 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좋은 기회를 주신 수영구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을 이어주고 성장시키는 체육

부산국민체육센터 김우진 과장 가족

부산국민체육센터 김우진 교육과장 가족은 요즘 센터 안에서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세 자녀 모두가 전문체육 선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한 눈빛에 사랑이 넘치는 이들을 만나보았다.

사진 제공: 점프볼



체육 전공 아버지의 교육철학

김우진 과장과 삼 남매를 만난 것은 햇살 따스한 일요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부산국민체육센터였다. 남매를 보는 순간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성숙함과 단단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김 과장은 학창시절 전문 선수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했다. 또한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에 오랜 기간 참여해왔다.

“체육의 중요성과 영향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아이들에게 운동을 꾸준히 하도록 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야구장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가족이 다 함께 야구장에 가서 자주 경기를 관람했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롯데디자인츠 응원 문화는 아이들도 재미있어했고, 제가 야구 규칙을 가르쳐 줄 때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집중 하더라고요.”

첫째 하윤이가 전문적으로 야구를 시작할 때는 아내도 동의했다. 하윤이가 남자 아이이고, 김 과장이 야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전문 선수가 되는 과정은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둘째 하윤, 막내 하린이를 농구부에 들어가게 할 때는 많은 시간에 걸친 설득이 필요했다.

“아내가 딸들을 예쁘게 키우고 싶고, 힘든 걸 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죠. 하지만 하윤이, 하린이가 운동에 확실한 재능을 보였고, 꼭 프로 선수가 되지 않더라도 운동하면서 체득하게 되는 문제 해결 능력, 끈기, 자신감 등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1년 정도 설득했어요.”

야구·농구계 큰 별이 될 삼 남매

하윤이는 수영초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했다. 수영초등학교, 부산중학교는 수많은 야구 스타를 배출한 야구 명문교다.

하윤, 하린이가 뛰고 있는 대신초등학교 농구부는 부산 시내 유일한 초등 여자 농구팀으로, 체계적이고 탄탄한 훈련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부산국민체육센터 김우진 과장



김하울

부산중학교 야구부에서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 1학년 김하울입니다. 훈련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야구부 형들이 친절하게 대해줘서 즐겁게 운동하고 있어요. 수영초등학교가 야구로 유명해서 대신동 집에서 멀지만 다니게 되었어요. 학교까지 가는 데 버스를 두 번 타야 했고, 등하교 시간에만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게 사실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 등을 배출한 명문 초등 야구부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 요즘 성적이 좋기도 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김하운

대신초등학교 농구부 선수인 5학년 김하운입니다. 포지션은 포워드이고, 특기는 달리기예요. MBTI는 ESTP이고 활발한 성격이라 반에서 체육부장을 맡고 있고요,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 주는 걸 잘해요. 전 BNK 썸 안헤지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드리블 실력이 뛰어난 데다 같은 대신초등학교 출신 선배라서 자랑스러워요.



김하린

대신초 농구부 4학년 김하린이예요. 언니랑 같은 포지션인 포워드구요. 유연성이 좋은 편이어서 스트레칭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전 3점슛과 드라이브, 리바운드가 뛰어난 BNK 썸 김소니아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 가끔씩 운동하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아빠, 오빠, 언니가 많이 도와줘서 잘 이겨내고 있어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향한 각오

삼 남매를 만나며 놀라웠던 점 중 하나는 오빠와 여동생들 사이에서 보기 드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들 남매는 체육 선수로서 서로를 조언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그런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각별함을 느낄 수 있었다. 훌륭한 선수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삼 남매에게 5월 24일부터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물어보았다.



김하운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 5학년부터 출전하게 되어서 저도 나가게 되었어요. 작년부터 농구를 시작해 운동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큰 대회에 나갈 기회가 생겨 너무 기뻐요. 대신초등학교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린

언니가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저도 좋아요. 4학년이라 출전 못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선배 언니들이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할 거예요.



김하울

저는 수영초등학교 야구부 시절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등 여러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요. 이번 체전에 중등부는 2학년부터 출전해요. 저도 하린이처럼 약간 아쉽지만 부산중학교 선배들이 큰 대회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많이 보고 배워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생각이에요.



경기장의 뜨거운 함성과 함께할 다채로운 즐길 거리

해운대구 & 사하구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3x3 농구와 요트 등의 경기는 해운대구에서, 소포테니스와 롤러 등의 경기는 사하구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두 곳 모두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과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 경기 관람은 물론, 함께한 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해운대구

- ▶ 경기장
- 관광 명소



문화와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해운대구에서는 축구, 레슬링, 복싱, 씨름, 에어로빅·힙합, 댄스스포츠·브레이크, 검도, 요트, 길거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 중 특히 농구와 요트 종목이 주목받고 있으며, 댄스스포츠는 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에서, 복싱은 벅스코 제2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라 기대감을 높인다.

농구 경기는 영화의전당 야외광장에서 3x3 형식으로 개최된다. 영화의전당은 오스트리아 건축팀 '쿱 힘멜브라우'의 설계안으로 건립된 해체주의 건축물로, 야외 두레라움 광장을 덮는 '빅루프'가 건축적 아름다움을 더한다. 체육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펼쳐질 농구 경기는 참가 선수와 관람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요트 경기가 열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슈퍼컵 국제요트대회'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바 있다. 국내 최정상급 요트팀들이 부산 바다 위에서 화려한 레이스를 펼칠 전국체전도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휴양과 레저의 중심, 해운대구의 명소

부산의 아름다운 해양과 도시 건축을 배경으로 펼쳐질 이번 대회는 해운대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특히 부산관광 일번지로 꼽히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최근 이색적인 관광 코스로 인기를 모으는 그린레일웨이 등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1. 사계절 인기 관광지, 해운대해수욕장

휴양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부산 대표 해수욕장이다. 백사장 길이 1.5km, 폭 70~90m, 면적 12만m²로 넓고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선을 자랑한다. 해안선과 고층빌딩, 특급호텔이 어우러져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이곳에서는 달맞이축제, 모래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빛축제, 북극곰 수영축제, 대학가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단순한 해수욕장을 넘어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2. 서핑의 메카, 송정해수욕장

자연미를 간직한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길이 1.2km, 폭 30~60m, 면적 5만 4천m²에 달한다. 전국에서 서핑객들이 몰려와 사계절 내내 서핑의 성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가을에는 대학생들의 MT 장소, 예비 신랑·신부들에게는 웨딩촬영 명소로 각광 받는다. 송정해수욕장 인근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는 현재 '그린레일웨이'로 재탄생해 천혜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도보코스이자, 해변열차의 종착역으로 주목받는 명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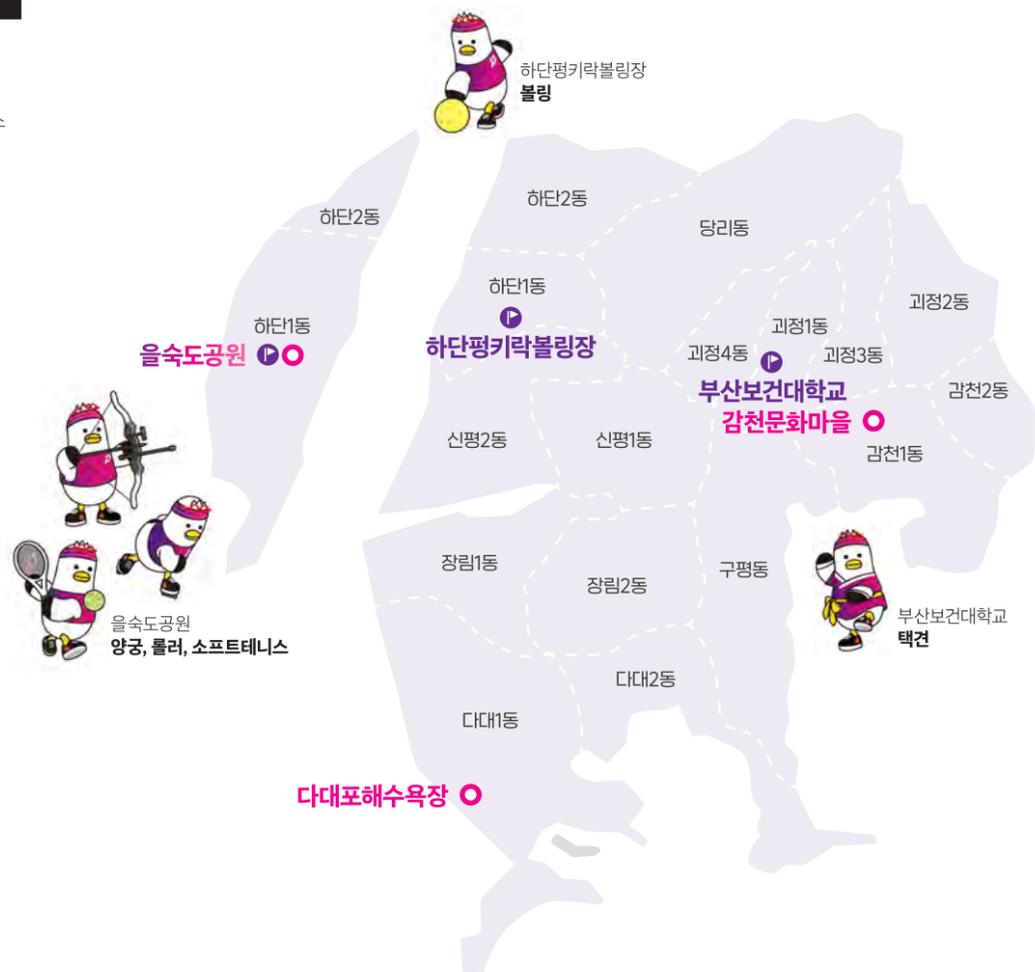


3. 바다를 걷는 길, 그린레일웨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를 재생한 9.8km의 해안 산책로로, 특히 미포~송정 구간(4.8km)은 수려한 해안 절경을 따라 양방향 산책이 가능하다. 광안대교, 달맞이, 마린시티 등 부산의 대표 명소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전국적인 포토 스팟과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구간 내 대표 관광지는 해운대 삼포로 불리는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이며, 15km/h로 저속 운행하는 해변열차와 함께 해운대 관광특구의 핵심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사하구

경기장
관광 명소



스피드와 기술의 뜨거운 격전이 기대돼

부산 사하구 을숙도에 위치한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은 제 106회 전국체전에서 롤러 종목의 주 무대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넓고 평탄한 트랙을 자랑하며, 초보자용 코스도 잘 마련돼 있어 누구나 안전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다. 보호장비 대여도 가능해 경기를 하는 선수뿐만 아니라 관람객도 스케이트를 타며 시원한 바람과 을숙도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최근 개보수를 마쳐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으로, 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테니스 경기는 을숙도 실내 테니스장에서 진행된다. 부산현대미술관 동편에 위치한 이 테니스장은 총 8개 면으로, 6개 면은 공공 이용, 2개 면은 사하구청 정구팀 전용 훈련 코트

로 활용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준공된 최신 시설로, 넓은 코트 간격과 충분한 뒷벽 간격 덕분에 다른 이용객과의 간섭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 실내 경기장이기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치열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하구 홈페이지(saha.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다이내믹한 경기, 다채로운 볼거리를 함께

롤러와 소프트테니스, 두 종목 모두 부산 스포츠 저변 확대와 유망 선수 발굴에 중요한 무대가 될 이번 전국체전에서, 관람객들은 을숙도의 자연과 어우러진 다이내믹한 경기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경기 관람 후에는 사하구가 자랑하는 다채로운 볼거리 속에서 낭만과 힐링을 만끽해보자.

1. 웰니스 해변, 다대포海水욕장

길이 1.5km, 폭 80~250m의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다대포海水욕장은 평균 수온 21.6°C로 가족 휴양지로 인기가 높다. 고운 모래사장이 발가락을 간질이고, 해질녘이면 황홀한 일몰 풍경이 펼쳐지는 명소다. 패들보드, 서핑보드, 카이트보드 같은 해양 스포츠는 물론, 노르딕워킹과 어싱 같은 힐링 프로그램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장소다. 최근 동측海水욕장이 새롭게 개장해 물운대 입구까지 확장된 구간에서 여유로운 산책과 아이들의 생태체험까지 가능해졌다.



2. 자연·사람 공존의 생태섬, 을숙도

'새 많고 물이 맑은 곳'이라는 이름처럼 을숙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공원이다. 과거 산업화로 훼손되었지만 2000년대 복원사업을 통해 자연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을숙도 철새공원과 생태공원에서는 자연보존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과 탐조, 갯벌 체험, 생태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다. 전동카트, 에코투어 생태탐방선, 숲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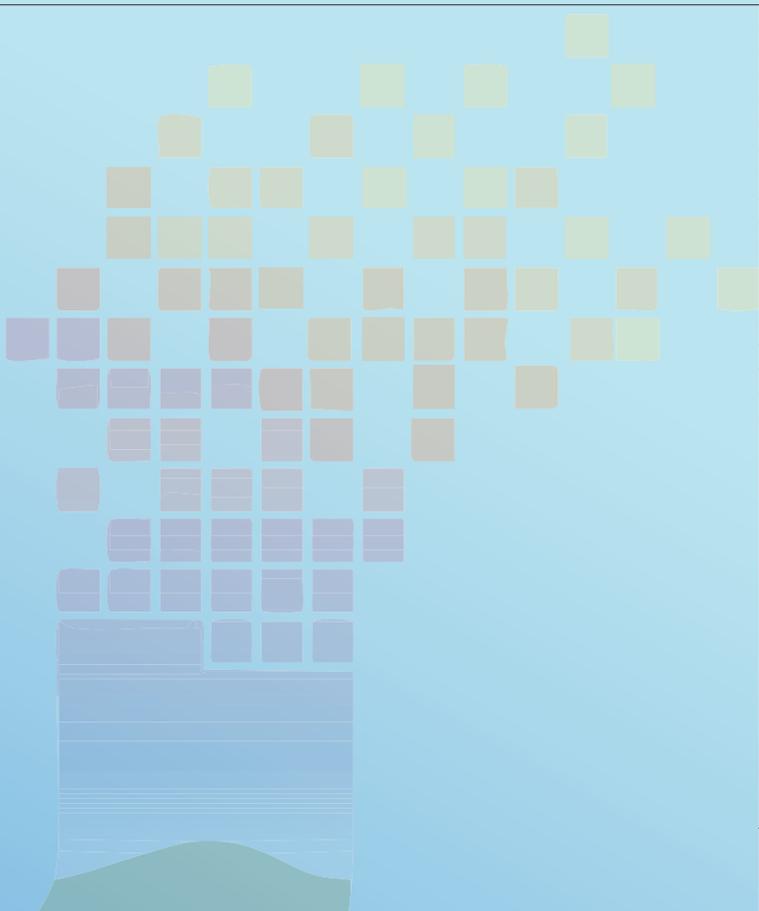
3. 예술로 재탄생한 골목, 감천문화마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한 계단식 마을로, 현재는 부산의 대표 마을재생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감천문화마을. 하늘과 산, 바다를 배경으로 미로 같은 골목과 알록달록한 주택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마을 곳곳에는 안내센터, 작은박물관, 하늘마루 전망대, 감내어울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마련돼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기념품과 특산물,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고령화와 지역 공동체의 약화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전남 일원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펼쳐진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대한민국 생활체육 문화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전남에서 피어난 생활체육의 열기

2001년 제주에서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 축전’으로 시작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대축전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계층 간 화합에 기여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대축전은 4월 25일(금)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구호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2,6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전남 17개 시·군 59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됐으며, 일본 선수단도 동참해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OK! Now Jeonnam, 활기 UP 생활체육!’을 주제로 열린 개회식은 식전공연, 공식행사, 축

하공연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풍물패와 비보잉이 어우러진 퍼포먼스, 서예가 송홍범의 대형 서예 퍼포먼스, 순천 출신 이종호 전 국가대표와 완도 출신 패럴림픽 메달리스트 이윤리의 개막 선언이 이어지며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제공연 1부 ‘마당놀이 전남 생생년’은 흥길동의 모험기를 통해 전남의 맛과 멋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전남의 미래산업인 AI, 바이오, 데이터 등을 1천 대의 드론 라이트쇼로 표현했다. 3부 ‘하모니 오브 전남’은 멀티미디어쇼로 참가자들에게 환영 메시지와 함께 전남의 비전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박지현, 황윤성, 발라드 가수 린, 걸그룹 트리플에스가 출연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세대를 아우른 스포츠 열정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이라는 생활체육의 취지에 걸맞게, 이번 대축전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정을 나눴다. 참가 동호인의 평균 연령은 46.67세였으며, 이 중 60대가 3,11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고령 참가자는 부산광역시 파크골프 종목의 이태로(만 91세·남) 어르신이며, 최연소 참가자는 광주광역시 빙상 종목 선수인 신유주(만 6세) 양이다. 이태로 어르신과 광주광역시 국학기공 종목의 이희빈(만 87세·여) 어르신은 이번 대회 최고령상을 수상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태로 어르신은 부산 금정구파크골프협회 회장으로, 파크골프 동호인 사이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 또 정정하게 골프채를 휘두르며, 파크골프를 기반으로 왕성한 사회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그는 파크골프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며, 금



정구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30명 남짓하던 시절부터 파크골프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령상을 수상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의 건강한 열정은 앞으로도 생활체육계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의 저력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생활체육 천국도시’ 비전을 선포한 이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전국생활체육대축전 35개 종목에 참가한 대표 선수 총 1,372명의 부산 선수단은 부산 생활체육의 저력과 활력을 전국에 알렸다.

부산 선수단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지 않으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그 결과 체조와 풋살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국학기공, 에어로빅힙합, 육상, 축구에서는 준우승, 그라운드골프, 롤러, 사이클, 수중핀수영, 철인3종, 태권도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체조와 풋살 종목은 각각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는 생활댄스 체조 일반부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해당 부문 7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선수단은 향상된 경기력을 인정받아 성취상 3위를 수상하며, 부산 생활체육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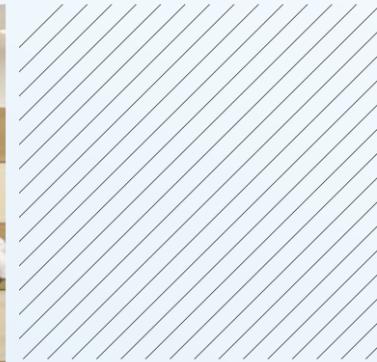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종목별 고른 성과를 거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했으며,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통해 스포츠 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록보다 값진 화합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7일(일) 목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폐회식은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 및 종합시상, 대회기 이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축전은 기록과 순위 경쟁을 넘어 전국 선수단의 화합과 소통,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질서상, 경기운영상, 특별상, 성취상, 경기력상 등 6개 분야로 시상을 진행했다. 경기력상은 종합 1위 경기도, 2위 전라남도, 3위 서울특별시 선수단이 수상했다. 성취상은 전년 대비 성적 향상이 두



드러진 전라남도(1위), 강원특별자치도(2위), 부산광역시(3위) 선수단에 돌아갔다. 질서상은 경상북도(1위), 세종특별자치시(2위), 충청남도(3위) 선수단이 수상했으며, 경기운영상은 대한롤러스포츠연맹(1위), 대한사격연맹(2위), 대한체조협회(3위)가 받았다. 특별상은 전라남도 선수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대한사이클연맹이 수상했다. 폐회식에 참석한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축전

을 통해 생활체육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스포츠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경기의 결과를 떠나 승부를 존중하고, 서로의 맘을 격려하며, 스포츠를 통해 진한 우정을 나누는 여러분이 대한민국 생활체육의 희망이자 미래”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내년 대축전은 대회기를 이어받은 경상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970년대 전국체전 이야기

“지방의 함성,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스포츠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시기였다. 전국체육대회, 즉 전국체전은 서울을 넘어 부산, 광주, 인천 등 지방 도시에서도 개최되면서 지역 체육 발전과 국민 스포츠 붐을 이끌어냈다.

자료 출처: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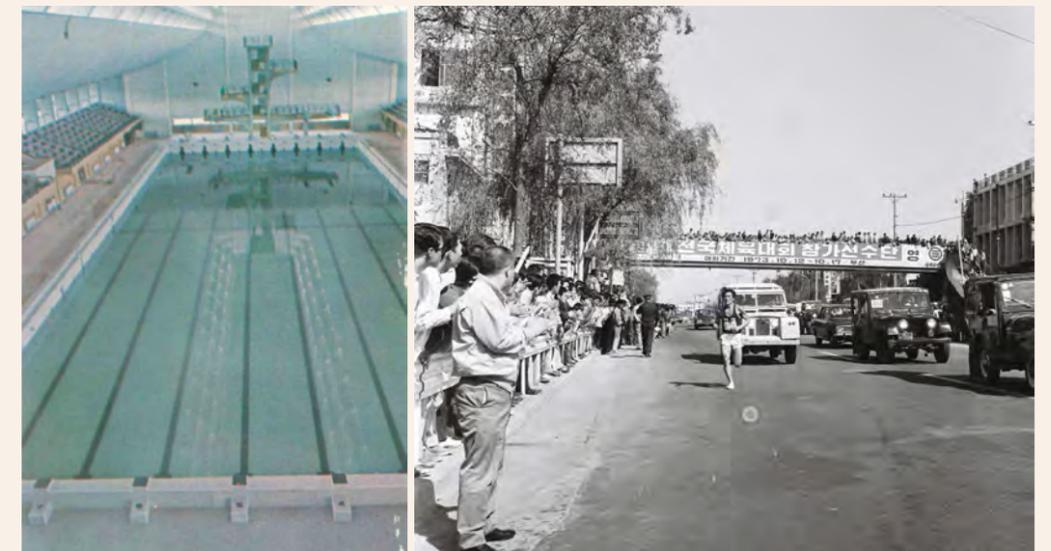


태릉국제수영장, 새로운 시대를 열다

1970년, 서울 태릉에 국내 최초의 국제 규격 실내수영장이 개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개관식을 치른 태릉국제수영장은 단순한 체육시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수영을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체전의 ‘하계대회’와 ‘추계대회’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열린 제51회 전국체육대회(1970년)는 참가 인원이 처음으로 16,000명을 넘는 대규모 대회로 기록되었다. 경기 종목도 28개로 늘어났으며, 경기 질서와 운영 수준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수영 스타 조오련은 이 대회에서 자유형 200m, 400m, 1,500m 부문에서 연이어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체육시설 현대화의 힘을 실감케 했다.

소년체전 출범과 해외 동포들의 참가

전국체전의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서울조차 대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다. 1972년, 초·중학생 부문을 별도로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창설한 것이다. 이는 체전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라는 커다란 결실을 가져왔다. 소년체전의 출범은 지방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도 큰 자극제가 되었다. 각 시도는 앞다투어 체육시설을 신설·보수하며 청소년 체육 진흥에 힘을 기울였다. 이곳에서 성장한 어린 꿈나무들은 훗날 전국체전은 물론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스포츠의 도약을 이끌게 된다. 1972년 제53회 전국체전부터는 재미동포, 재일동포 선수단이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모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안고 참가한 해외 동포들은 전국체전을 단순한 국내 대회를 넘어, ‘세계 한민족 스포츠 대제전’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참가 자격은 ‘본적지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교포 선수단의 참여 폭을 크게 넓혔다. 이로써 전국체전은 국내 선수들만의 무대를 넘어 세계 속 한민족의 축제 자리 잡았다.





지방에서 터진 함성, 부산·광주·인천의 대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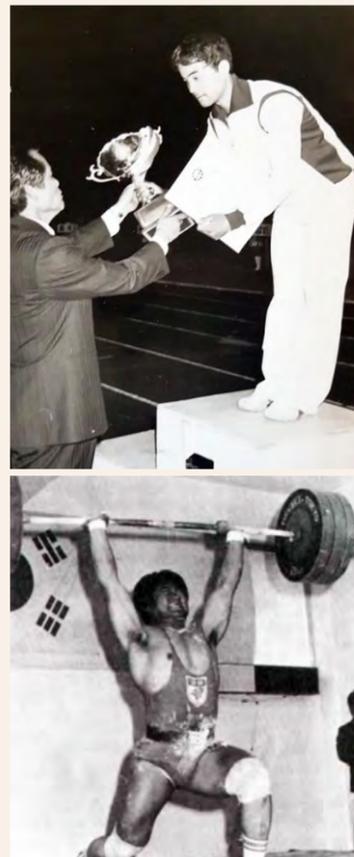
오랫동안 서울이 독점하던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지방 순회 개최 시대를 열었다. 8년 만에 서울을 벗어난 이 대회는 부산에서 열렸고, 12,0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부산 개항 100주년을 기념한 1976년 제57회 대회 역시 해외 동포를 포함한 14개 시도에서 12,000명이 참가하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히 구덕운동장에 모인 40,000명의 시민들과 14,000명의 카드섹션은 지방 스포츠 열기의 상징이 되었다.

1977년,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제58회 대회는 ‘총화체전, 질서체전, 절약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광주는 개최식에서 해녀들의 강강술래 공연 등 향토색 짙은 행사를 선보이며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이 대회에서는 경기도가 서울의 7연패를 끊고 사상 첫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1978년 인천에서 열린 제59회 대회에서는 경기도가 2년 연속 종합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력 향상과 함께 도시 기반 시설 역시 크게 발전하여, 대회 개최가 도시 발전의 촉진제가 되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1979년 대전에서 개최된 제60회 대회는 정부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유치 계획을 공식화한 해에 열린 만큼,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최신식 경기장이 대거 등장하며 전국체전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스포츠 내셔널리즘과 북한과의 체제 경쟁

1970년대 초반,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는 우리나라가 은메달 1개에 그친 반면, 북한은 금·은·동메달을 고루 따내며 종합 22위에 오르는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에서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더욱 자극했다. 전국체전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국력을 다지는 무대’, ‘북한에 절대 지지 말아야 할 전초전’으로 인식되었다.

체력 향상과 경기력 증진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고, 대한체육회는 신기록 수립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1971년 제52회 대회에서는 양궁이 시범종목으로 첫선을 보였다. 비록 초창기에는 국제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선수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거나 점수 계산 착오가 발생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이듬해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한국 양궁 신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1978년 인천 대회에서는 박영숙 선수가 양궁 여자 50m 싱글 부문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한국 양궁의 세계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시기 전국체전은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해 참가 자격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신기록 수립자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경기력 향상을 적극 장려했다.

전국체전, 전국을 하나로 잇다

1970년대 전국체전은 스포츠를 넘어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과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거대한 축제였다. 지방 개최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문화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각 도시들은 전국체전 개최를 계기로 스타디움,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현대화했다. 이는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0년대 전국체전은 오늘날 한국 스포츠 발전의 초석이자, 스포츠가 가진 ‘국민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장 빛나게 보여준 무대였다.





무패 행진, 진짜 피구를 보여주다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눈 깜짝할 사이 공에 맞고 아웃되는가 하면, 움직임을 쫓을 새도 없이 내야에서 외야로 공이 날아다니고 수시로 공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피구라고?’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는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을 찾았다.

Q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과 지도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은 2022년에 창단하였으며,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현재 5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대회들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개최되었는데, 그때부터 2024년까지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남녀 모두 우승을 하게 되어 더욱 뜻깊었고요. 이벤트 경기였던 멀티볼 경기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피구를 지도하고 있고, 국가대표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화정초등학교에는 2021년에 오게 되었습니다.

Q 정식 종목으로서의 피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2명이 한 팀이며 1명은 외야, 11명은 내야에 위치한 상태에서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공에 맞으면 아웃되는 건 보통 알고 있는 피구와 같아요. 그런데 머리에 공을 맞게 되면 공을 맞은 선수는 아웃되지 않고 공을 맞힌 팀의 공격권이 상대 팀으로 넘어갑니다. 내야수끼리 혹은 외야수끼리 패스할 수 없고, “몇 번 죽여”, “너 죽었어 나가” 이런 말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욕을 하거나 상대를 비방하면 경고를 받거나 퇴장 조치가 내려집니다. 멀티볼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은 국제 경기입니다. 5명이 한 팀이며, 내야에서 상대편 공을 잡으면 아웃되었던 선수가 내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피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Q 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식 훈련은 아침 7시 30분에 모여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에 약 20분 아이들이 연습 경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제가 항상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운영에 있어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전 선수, 경기 출전 등의 기회가 생겼을 때 성실한 아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만큼 클럽 규칙이 엄격해요. 예를 들면, 무단결석을 3일 이상 하면 탈퇴가 됩니다. 대신 훈련에 나오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만 하면 어떤 이유든 인정해 주고요.

Q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팀원들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팀원들 사이가 정말 좋아요. 서로 배려도 잘하고요. 공을 잘못 맞거나 패스 실수를 하면 곧바로 사과부터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을 땐 손짓으로도 반드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공격 자세, 수비 방법을 전수하고, 규칙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밝고 열정이 넘쳐요.

Q 피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잘 던지지 못하거나 발이 느려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을 피하고 던지면서 민첩성, 순발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팀 운동인 만큼 협동심도 배울 수 있어요. 놀이로 즐기는 피구, 정식 종목으로서의 피구, 국제 경기인 멀티볼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피구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MINI INTERVIEW 정호윤 교장 선생님

우리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면 운동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인성도 훌륭합니다.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피구대회에서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을 맡은 학생이 많습니다. 정성률 감독님의 훌륭한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저는 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기에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냄으로써 훗날 이 시기를 떠올렸을 때 자신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아이들 놀이인 줄 알았던 피구가 꽤 역동적인 스포츠라는 것을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피구 종목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수상 내역



- 북부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남녀 동반 준우승
- 부산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여초부 우승, 남초부 준우승
- 제15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피구대회 여초부 7전 전승



2023

- 북부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남녀 동반 우승
- 부산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여초부 우승, 남초부 3위
- 제16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피구대회 여초부 우승



2024

- 북부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남녀 동반 우승
- 제3회 창원시피구연맹 회장배 피구대회 남녀 동반우승
- 부산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피구대회 남녀 동반우승
-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피구대회 남녀 동반우승



김준승 주장

1. 4학년 때 친구들이 피구부에 들어가는 걸 보고 '요즘 피구부가 유행인가' 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팀 패스 전환 속도가 빠르고 실력이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습니다.
3. 모두 다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서 올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주원 부주장

1. 원래 피구를 좋아했는데, 팀원들과 패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2. 수비에서 공격으로 패스하는 속도가 빠르고, 공을 피하기보다 수비를 더 열심히 합니다.
3. 현재 목표는 부산에서 1등과 전국대회 우승이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김여진 주장

1. 피구부 선생님의 스카우트로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압박감이 컸는데 나중에는 긴장감이 재미로 느껴졌어요.
2. 팀원들 합이 좋아요. 서로 응원을 많이 하고, 실수했을 때는 '그랬구나~' 하고 이해해줘요.
3. 저희 경기를 보시면 피구의 진정한 재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북부교육청 대회를 통과해서 부산시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고,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최이은 부주장

1. 3학년 때 점심시간마다 피구를 하다가 4학년 때 피구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실력이 좋아지니 점점 더 재미있었어요.
2. 친구들이 하나같이 밝고 착해서 두루두루 친하게 지냅니다.
3. 친구들이 피구부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전국 대회 4연승! 반드시 할 테니 지켜봐주세요.



1.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활동 계기
2. 화정초등학교 피구 스포츠 클럽 자랑
3. 하고 싶은 말



강서구, 벚꽃과 함께 걷는 건강한 한 걸음

벚꽃길 걷기대회 성황리 개최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박도희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지난 주말, 대저생태공원 인근 강변 산책로에서 '2025 강서 벚꽃축제'의 일환으로 '벚꽃길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벚꽃길을 따라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기획된 스포츠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약 3,000명의 시민이 참가해 강서구의 봄을 더욱 활기차게 수놓았다.

걷기대회는 약 5km의 코스로, 초등학교생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게 완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출발 전, 체육지도자들이 진행한 스트레칭과 준비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몸을 풀고 부상 예방에 힘썼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생활체육' 실천의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최근 운동 부족과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걷기대회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려했다. 코스 중간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벚꽃 아래 설치된 포토존에서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으

며 봄날의 소중한 추억을 남겼고,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은 걸음걸음마다 봄의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걷기대회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의 성취감을 높였다.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짧은 거리지만 땀이 흐를 정도로 열심히 걸으니 오랜만에 운동하는 기분이 들었다", "평소 운동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렇게 벚꽃도 보고 운동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일부 참가자는 이 걷기대회를 계기로 개인적으로 매일 30분 걷기 습관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를 연계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벚꽃길 걷기대회'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함께 걷는 건강한 강서구'라는 목표를 실천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었다.



부산 도심 속 산책 코스 명소 스포원은 생활체육 맛집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금광진

부산 도심 속의 산책 코스 명소인 '스포원'은 금정구 두구동에 위치하였다. 산복 도로와 골목이 많은 부산이지만, 이곳 스포원은 산책로가 평지로 조성되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걷기에 안성맞춤인 곳으로 꼽힌다.

“아마도 부산 사람들 중 스포원이 산책하기 좋은 곳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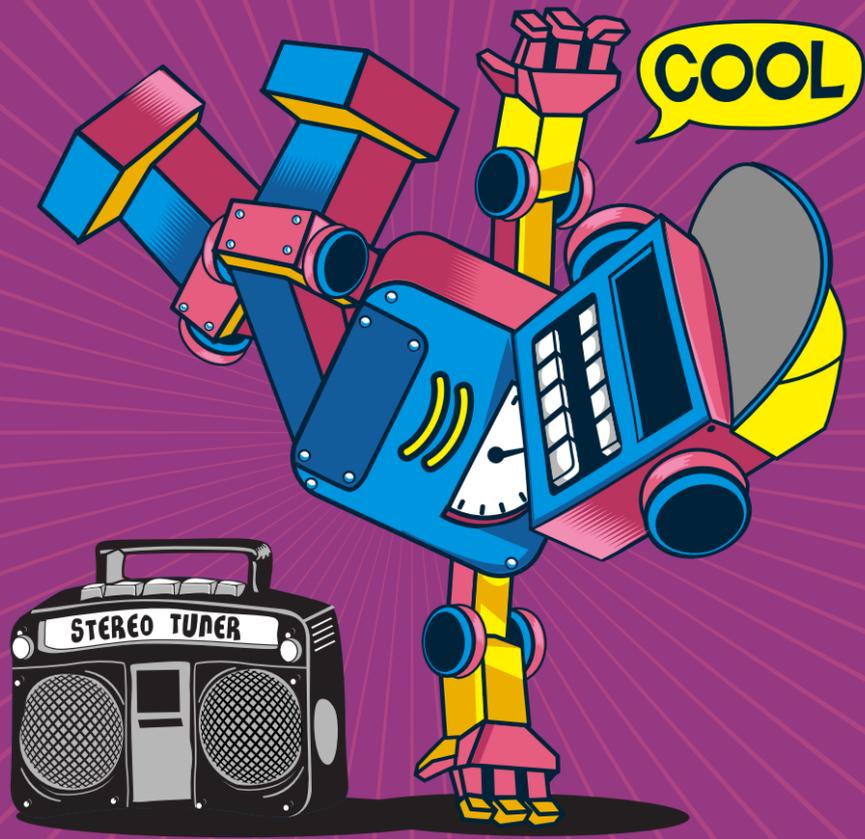
스포원은 특히 봄이 되면 화사한 동백꽃과 벚꽃이 만발하여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산책 코스 명소이자 피크닉 장소로 인기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와 산책로가 구분되어 있어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에 좋다. 주말이면 자전거 타는 시민

들이 많지만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있어 안전하게 산책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이처럼 계절을 느낄 수 있어 피크닉 장소로 인기있는 스포원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는데, 그 이유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스포원에는 스포츠센터가 있어 수영, 골프, 탁구, 배드민턴, 축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긴장감과 아찔함을 느낄 수 있는 경륜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등 무료로 실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부지 16,163m²의 면적의 실내체육관에서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핸드볼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데다가 실외 풋살장과 축구장이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

이지 않는다. 일상을 열심히 보내고 주말이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뛰고 열정을 나누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건강과 체력을 품게 되지 않을까. 스포원에서는 선수 못지 않은 열정과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니,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경기를 엿보는 또다른 재미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부산 도심 속 산책 및 자전거 라이딩 코스이자 피크닉 명소인 스포원. 스포원은 남녀노소가 즐겨 찾는, 건강을 다지고 체력을 다지는 생활체육 맛집이다. “스포원으로 라이딩하러 오세요~”

화려하고 파워풀한 춤의 표현

브레이킹(Breaking)



1970년대 초반 뉴욕의 힙합 문화를 대표하던 브레이킹은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경쟁의 수단이자 화합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화려한 테크닉과 예술성이 공존하는 거리의 무대, 다가올 여름을 압도할 뜨거운 열정을 잠시 체험해 보자.

자료 출처: 대한민국댄스포츠연맹, 2024 파리 올림픽 사무국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민국댄스포츠연맹

브레이킹의 역사

브레이킹은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1970년대 초반 뉴욕 사우스 브롱스 지역에서 탄생되었다. 당시, Block Party(동네에서 여는 소규모 파티)에서 최초의 힙합퍼 DJ Kool Herc이 레코드 중간에 있는 Break Down(모든 악기음을 배제하고 드럼비트만 나오는 부분, 현재는 'Break Beat'로 불림)을 플레이 했고, Break Beat에 등장하여 춤을 추는 댄서들을 Break-Boy 즉, 'B-Boy'라 칭하게 되었다. 이후 힙합 문화와 더불어 브레이킹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높은 난도와 기술성, 대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2018 유스 올림픽,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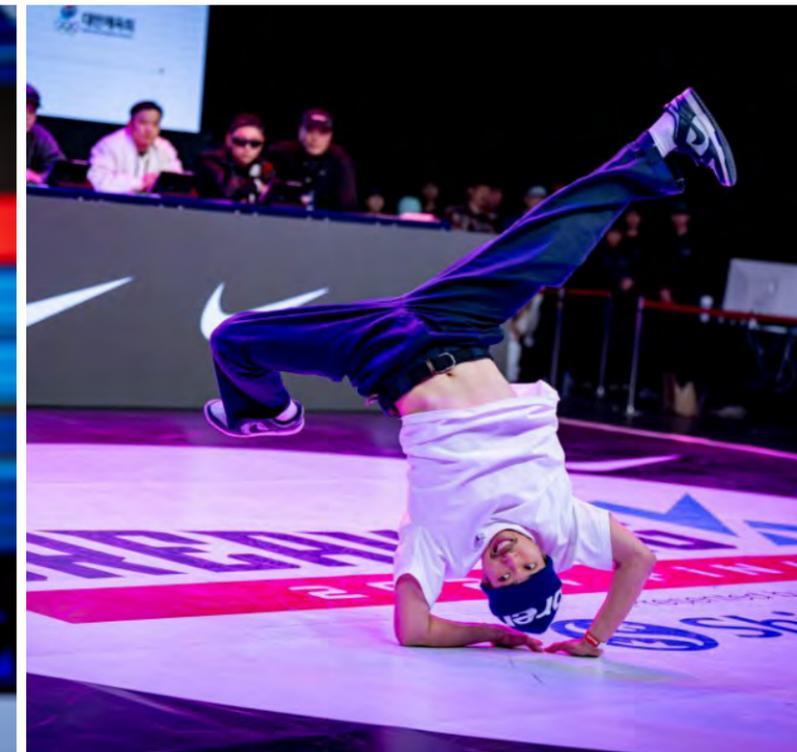
브레이킹을 구사하는 남성을 B-Boy, 여성을 B-Girl로 칭한다. (이하 B-Boy로 통일)

Tip 브레이킹만의 문화 - 배틀

브레이킹 씬에는 '배틀'이라는 문화가 활발하게 자리 잡고 있다. 종목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B-Boy들의 기량을 뽐내고 경쟁하며 나아가 동료가 되는 문화가 정착된 것.

개인 간 경쟁은 물론 둘 이상의 B-Boy(B-Girl)가 팀을 이뤄 대결하기도 한다.

1 대 1 부문에서는 창의력과 기술력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2 대 2 이상 단체전에는 협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는지가 승부의 핵심 포인트다.



브레이킹의 구성

브레이킹은 크게 4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이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장점과 특징을 살려 새로운 형태의 동작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탑락



본격적인 무브에 들어가기 전, 스탠딩 상태에서의 동작. 발동작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리듬을 표현한다.

다운락



바닥에 손과 발, 상체, 하체 등이 닿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동작으로 플로어워크라고도 불린다. (풋워크, 플로워 등) 다양한 스텝과 이동을 통한 기술이 주를 이룬다.

파워무브



원심력을 이용한 고난도 회전 동작으로 윈드밀, 헤드스핀, 플레어 등이 포함된다. 훈련된 근력과 체력을 요구하며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프리즈



무브 흐름 중의 멈춤 동작으로 몸의 균형감과 근력이 필요하다. 특정 포즈를 유지하며 동작을 마무리할 때 사용한다. (베이비 프리즈, 에어체어, 에어베이비 등)

스타일무버·파워무버

다운락을 주로 구사하는 B-Boy를 스타일무버, 파워무버를 주로 구사하는 이들을 파워무버로 칭하지만, 오늘날엔 모든 요소들이 두루 사용되고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 때문에 기술 구사력은 물론 무버들의 예술적 감각, 창의성 등이 채점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 방식 및 심사 기준

경기 방식

8m × 8m 정사각형 크기의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60초 동안 번갈아 브레이킹 기술을 겨룬다. 사전 공지 없이 무작위로 음악이 재생되면 B-Boy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에 맞는 무브를 즉흥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기술 구사력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해와 순발력이 요구되는 만큼 어떤 음악이 플레이되는지에 따라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사 기준

브레이킹은 트리비움 밸류 시스템을 통해 공연을 심사한다. 이는 신체-예술-해석적 능력을 동등한 비율로 나눠 기술-다양성-창의성-개성-수행력-음악성 6개의 세부 항목을 수치화한다.

신체적 능력	기술	20%
	다양성	13.333%
해석적 능력	수행력	20%
	음악성	13.333%
예술적 능력	창의성	20%
	개성	13.333%

감점 요소

- 의도와 달리 무대 중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 다른 선수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 상대 선수의 동작 모방
- IOC(올림픽위원회), WDSF(세계댄스스포츠연맹)에서 지정한 금지 동작 수행
- 같은 동작의 반복



신체적 능력(바디) - 기술, 다양성

기술: 선수가 얼마나 정교하게 동작을 수행하는지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동작을 사용하는지

해석적 능력(소울) - 수행력, 음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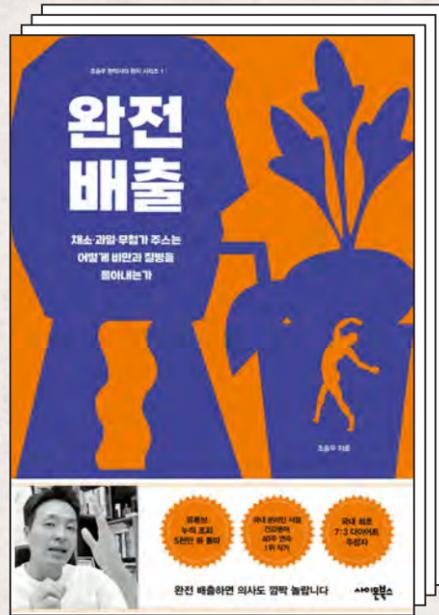
수행력: 동작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하는지
음악성: 음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예술적 능력(마인드) - 창의성, 개성

창의성: 얼마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동작을 사용하는지
개성: 자신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채소·과일·무첨가 주스는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가

완전 배출



저자 조승우 / 출판사 사이몬북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보아야 합니다.”

질병과 다이어트 또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살이 빠지고 질병이 낫는 실천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인슐린이나 당화혈색소와 같이 알 수 없는 이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타민B12나 LDL, 콜레스테롤과 같은 학자들의 이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질에 대한 실천법으로 ‘살아 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을 부지런히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대에 은행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자는 영업에 매진하며 야근과 야식이 일상인 삶을 살았다. 모닝커피는 물론 습관처럼 아메리카노를 손에 쥐고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렇게 20대를 보낸 그는 더 많은 수익을 꿈꾸며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다. 다양한 원두를 직접 맛보고 로스팅하는 과정을 거쳐 다이어트 커피 개발에 성공했고, 사업은 승승장구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무게는 80kg을 넘어섰고, 극심한 심장 통증이 찾아왔다.

사실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불면,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소화제와 진통제로 버티고, 근육통이 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앞만 보고 달린 결과는 참담했다. 심장을 쥐어짜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심장혈관이 점차 막혀가는 관상동맥질환 초기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검사와 처방약의 부작용에 시달리던 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늦은 나이에 약학대학에 진학했다. 자신의 경험과 공부를 통해 ‘병원과 약물만으로는 질병을 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업을 정리한 뒤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하며 본격적으로 건강 공부에 몰두했다. 수많은 인류학·진화생물학 서적을 탐독하고 실제 환자들을 만

나며 배움을 쌓은 끝에 그가 도달한 결론은 명확했다. 우리 몸은 죽어 있는 가공식품이 아닌, 살아 있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자, 몇 달 만에 몸무게는 62kg으로 줄었고, 동맥경화 증상 또한 말끔히 사라졌다.

야생의 육식동물은 살아 있는 고기를, 초식동물은 살아있는 풀을 먹는다. 그들에게는 비만도 질병도 없다. 저자는 오직 인간만이 죽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 결과로 비만과 질병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매일 먹는 음식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당장의 통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와 약에만 의존하며 근본적인 식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지닌 자연 치유력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는 저자가 한약사로서 채소과일식단을 처방하고,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개선한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제시해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의 제안을 따라 냉장고 속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을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조승우 한약사 추천! CCA(까) 주스

CCA 주스는 당근(Carrot)과 양배추(Cabbage), 사과(Apple)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로, 섬유질이 풍부하고 디톡스 효과가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사과 2개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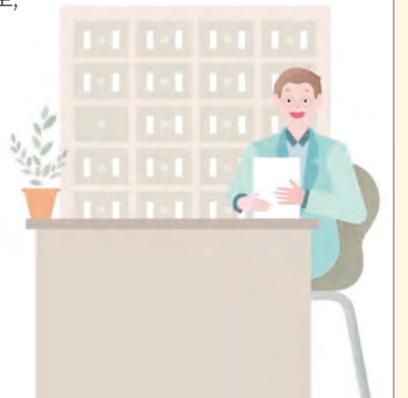


양배추 1/4개



당근 1개

물 이외의 첨가물은 지양하고, 단맛을 더하고 싶다면 사과의 양을 조절해보자.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 부산 시민 1인 1스포츠 갖기 및 자전거 타기 보급 활성화 기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4월 5일(토)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개최하였다.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화명생태공원-원동 가야진사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가족 단위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코스, 동호인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코스로 나누어 순위 경쟁 없는 비경쟁 대회로 진행되었으며 1,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09년부터 개최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개최하는 대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36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4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18일(금) ‘제36회 부산광역시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를 삼락생태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개최하였다.

시민게이트볼대회는 부산지역 게이트볼 동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동호인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 구·군체육회 소속 46개 클럽 400여 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날 우승은 해운대구 해운대팀, 준우승은 강서구 녹산팀, 공동 3위는 사상구 사상3조팀, 부산진구 백양팀이 차지했다.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과 16개 구·군청장 및 체육

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박형준 시장은 대회를 통해 “부산을 ‘생활체육 천국도시’로 만들기 위해 체육국을 신설하였으며, 시민들이 부산 곳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육 활동으로, 이번 대회가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어르신들께 활력을 불어넣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의료기관을 넘어 따뜻한 동반자를 꿈꾸다

속바른내과 종합검진센터 정연정 대표



사진 제공: 속바른내과 종합검진센터



4월 11일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 서구 속바른내과
종합검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육회 이사이기도 한
정연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병원 전문가이자 체육 마니아

정연정 속바른내과 종합검진센터 대표는 학창시절 육상선수로 활약했던 바 있다. 하교 후에는 친구들과 배드민턴, 훌라후프 등의 운동을 즐겼으며, 80년대 훌라후프 붐이 일어났을 때 성인들 사이에서 초등학교생의 나이로 대회에 참가하여 자전거를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필라테스, 요가, 골프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이렇듯 건강한 생활에 관심이 많은 정 대표는 병원 행정 전문가로서도 임지를 다져왔다.

“지난해 3월 현재 자리로 검진센터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저는 의료기관이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BNK금융그룹, HJ중공업 등 지역 기업·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합리적이면서도 양질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산체육인 상생, 권익 증진 노력

이번 부산광역시체육회-속바른내과 업무협약을 통해 체육회 사무처 및 회원단체 임직원 또는 가족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센터가 이전한 지 1년 조금 넘는 만큼, 시설이 매우 쾌적하고, 종합병원급 최신 검진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흔히 이용하시는 위·대장 내시경, 정밀초음파 장비뿐만 아니라 혈액 및 종양표지자검사, 저선량(방사선 감소) CT, 독자적 기술의 MRI 장비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과 생활체육 동호인 가족들에게 효율적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을 예방하고, 체육인 권익 증진에도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 대표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치매 인식 개선 뮤지컬 ‘주문을 잊은 식당’을 개최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 전환을 이끄는 데 힘썼다. 또한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기부와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민의 동반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를 맡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직무를 잘 해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합니다. 올해 10월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중구체육회-이상국치과 업무협약(MOU) 체결

중구체육회는 지난 4월 14일(월) 광복동주민센터에서 이상국치과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구체육회 임원 및 소속 동호인들에게 100세 시대에 중요한 치아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과 활력 있는 생활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서구체육회



제36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 서구 3개 팀 참가

4월 18일(금), 삼락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제36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게이트볼협회와 16개 구·군체육회가 공동 주관하여 총 48개 팀, 4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서구에서는 총 3개 팀, 21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내 게이트볼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동구체육회



동구 배드민턴·테니스·족구 대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4월 27일(일) 동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동구테니스협회장배대회, 동구족구협회장배대회를 개최하였다.

3개 종목 동호인 400여 명이 참석하여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쳤다.

영도구체육회



영도구체육회 시민게이트볼대회 참가

영도구체육회는 4월 18일(금) 개최된 제36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게이트볼대회에 참가했다. 이 대회는 건강 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쳤다. 영도구체육회 한영익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앞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진구체육회



제16회 부산진구청장배 탁구대회 개최

4월 19일(토), 초연근린공원 체육관에서 제16회 부산진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부산진구 관내 수많은 탁구 동호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부산진구 김영욱 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동호인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생활체육 탁구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진구답게,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에서 다양한 팀과 선수들이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치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진구체육회는 앞으로도 탁구 동호인들을 위한 환경 조성과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동래구체육회



제22회 동래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 개최

4월 13일(일), 금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동래구배드민턴협회장기대회는 3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들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 되었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향후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체육회



2025 제67회 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4월 6일(일), 화명생태공원에서 제67회 테니스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17개 클럽에서 참여하였으며, 금배부 우승은 워크랜드, 은배부 우승은 사시사철, 동배부 우승은 매치포인트, 신인부 우승은 카이저B가 차지하였다. 모든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화합의 장을 펼친 가운데 대회는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다.

남구체육회



제1회 남구체육회장배 겸 남구축구협회장배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4월 20일(일) 백운포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제1회 남구체육회장배 겸 남구축구협회장배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 열렸다.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오은택 남구청장, 서성부 남구의회의장 등 남구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비가 오는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소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대회였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4월 6일(일), 해운대수목원 축구장에서 제7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아 조금은 쌀쌀한 날씨였지만 대회에 참가한 230명의 동호인은 열정으로 추위를 이겨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에는 김미애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체육회 박영곤 회장을 포함한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치열한 경기 끝에 J5부는 재미사마A, J6부는 증산, J7부는 송주B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사하구체육회



제29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4월 12일(토), 을숙도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 테니스장, 신평구장에서 제29회 사하구테니스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클럽 대항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 속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대회 결과 금배조 우승은 베스트(A)클럽, 은배조 우승은 성원클럽, 동배조 우승은 OK(A)클럽이 차지하였다.

금정구체육회



2025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개강

금정구체육회가 2025년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을 4월 1일(화)에 개강하였다. 생활체육교실은 구민의 건강 증진, 활기찬 지역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금정구체육회 상반기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은 탁구, 다이어트킥복싱, 건강태권도, 게이트볼, 아쿠아로빅 총 5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체육회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대회, 연날리기 체험

4월 4일(금)부터 4월 6일(일)까지 개최한 제8회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 기간 중 강서구체육회에서 주관한 벚꽃 걷기대회와 가족과 함께하는 연날리기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체험 행사를 통해 유소년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가족의 사랑을 키우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기념품과 시상품을 전달하여 강서구체육회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

연제구체육회



2025년 연제구체육회 임원단합대회

연제구체육회는 4월 16일(수) 임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금정산 전망대를 지나 남문을 거쳐 동문에 이르러 족구대회와 다양한 이벤트 게임을 하며 친목을 도모, 화합하는 뜻깊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수영구체육회



2025 수영구 테니스·탁구협회장배대회 개최

2025 수영구 테니스·탁구협회장배 대회가 4월 20일(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수영구테니스협회장배 대회는 동수영중학교테니스장과 남천삼익비치아파트 테니스장에서 8개 클럽 150여 명이 참가하여 경기를 진행하였고, 수영구탁구협회장배 대회는 수영구스포츠클럽 다목적 체육관에서 16개 클럽 250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다수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열띤 경기를 펼쳤다.

사상구체육회



2025 사상구청장배 및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4월 13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2025 사상구청장배 및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사상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행사로, 협회 관계자 및 선수단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는 동호인 클럽 간의 열띤 경쟁 속에 펼쳐졌으며, 팀워크와 실력을 겸비한 이지스클럽이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의 인기와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장군체육회



2025년 무주군체육회 생활체육교류전

올해는 기장군체육회와 무주군체육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8년이 되는 해로 4월 5일(토)과 6일(일)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에서 체육 교류대회를 가졌다. 무주군체육회와 기장군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지역 체육인과 동호인 등 40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총 8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며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2025년도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교육 진행

4월 22일(화),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교육은 ▲CPR 개요 및 필요성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법 ▲AED 연습용 키트 시연 등의 응급처치 기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2025년도 무료 생활체육교실 운영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교실 무료강좌 프로그램(수영, 실버에어로빅)을 개강하여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운영한다. 참가자 모집은 유선으로 접수(선착순)받았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활력 등 건강을 찾게 해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국민체육센터



어르신 바우처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개강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건강증진컨설팅 전문 기업 웰니스랩과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인 어르신 바우처 아쿠아로빅 수업을 4월 1일(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부산 거주 어르신 대상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 증진 및 헬스케어 프로그램으로 추가 접수도 진행 중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빙상체험교실 수업 진행

부산실내빙상장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빙상체험교실 수업을 진행한다. 관내 45개교 초등학교 4~5학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이 평소 학교 수업에서 접하기 힘든 다양한 스포츠 분야를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실내빙상장



제3회 부산광역시장애인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개최

4월 26일(토)부터 27일(일) 양일간 제3회 부산광역시장애인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스포원테니스장 등 9개 경기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전국신인부, 오픈부, 개나리부, 국화부 4개 부서에 전국 테니스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체육관 CPR(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 실시

신평장림체육관은 지난 4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정지 인식, 흉부 압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다루었다. 또한,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과 위험 요소 점검 요령도 교육하였다. 신평장림체육관은 앞으로도 안전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교육과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2025년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개최

4월 13일(일)부터 20일(일)까지 8일 동안 스포원테니스장에서 2025년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21회째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대회로 34개국 35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대회는

성황리에 마쳤다. 본 대회는 ATP 챌린저 125 대회로, 신주식 제21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장은 ATP 챌린저 175로 승격하여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서	우승	준우승
개인단식	Terence Atmane(프랑스)	Adam Walton(영국)
복식	Rio Noguchi(일본) Yuta Shimizu(일본)	Ray Ho(대만) Christopher Romios(영국)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2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수영선발전 참가 '부산대표 2명 선발'

4월 6일(일), 창원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수영 부산대표 선발전에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소속 수영전문선수 7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선발전은 전국소년체전 본선 출전을 위한 부산지역 대표 선발전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수들은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다. 그 결과, 이승준(초3) 선수가 평영 50m 1위, 고민재(초5) 선수가 개인혼영 200m 2위로 총 2명의 선수가 부산 대표로 최종 선발되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거나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오는 5월 전국소년체전 본선을 대비해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3

2025 부산광역시춘계협회장배 종별테니스대회 출전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의 테니스 전문선수들이 김경원 감독과 서동연 코치의 인솔하에 2025 부산광역시춘계협회장배 종별테니스대회에 출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선수들은 꾸준한 훈련과 열정으로 기량을 크게 향상시

켰으며, 이번 대회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우수한 성적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회 성적

- 여12세 단식 1위 성다영
- 여12세 복식 2위 성다영, 김서진
- 남12세 단식 2위 박서울
- 남12세 복식 1위 오현, 박서울
- 남10세 단식 2위 김지윤
- 남10세 복식 2위 유하진, 김지윤
- 여10세 단식 2위 박지원
- 여10세 복식 2위 김서경, 박지원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이번 호의 <푸른 바다, 큰 꿈> 인터뷰 대상은 부산국민체육센터 김우진 과장의 가족입니다. 세 명의 자녀가 학생선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농구 ② 축구 ③ 야구

2 지난 4월 24일에서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부산 선수단은 전년 대비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시도에게 주어지는 성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산은 성취상 몇 위를 기록했을까요?
① 1위 ② 2위 ③ 3위

3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이번 호 표지에서 소개되고 있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이번 수영구청 실업팀의 종목이기도 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풋살 ② 브레이킹 ③ 탁구

『부산체육』 제77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③ 체육진흥과 2. ③ 탁구 3. ① 근대5종	유*진(9173) 최*이(7816) 신*미(3814) 김*범(8167) 유*연(1138) 김*경(7570) 손*욱(0905) 조*빈(3786) 김*훈(1107) 배*연(6622)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하울이는 수영초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를 시작했다. 수영초등학교, 부산중학교는 수많은 ○○ 스타를 배출한 ○○ 명문교다. 하윤, 하린이 뛰고 있는 대신초등학교 ○○부는 부산 시내 유일한 초등 여자 ○○팀으로, 체계적이고 탄탄한 훈련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다.

<푸른 바다, 큰 꿈> 15쪽

2 **힌트** 성취상은 전년 대비 성적 향상이 두드러진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선수단에 돌아갔다.

<Sports is Busan> 24~25쪽

3 **힌트** 1970년대 초반 뉴욕의 힙합 문화를 대표하던 ○○○○은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경쟁의 수단이자 화합의 언어로 인정받았다.

<종목 소개> 38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응모 기간	2025.5.15.(목)~5.31.(토)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79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노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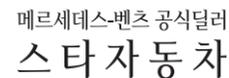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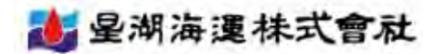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두근두근 당신을 가슴 뛰게 하고 싶어서

2025년에 당신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게요

BNK부산은행이
당신의 내일을
가슴 뛰게 만들 테니까

세상을 두근거리게
BNK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